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2년 12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2022년 9~10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45,950,000	
구 분	2022년 9월	2022년 10월	
자 동 이 체	710명 11,595,740	723명 11,843,180	
지 로	43명 718,990	88명 839,930	
C M S 이 체	194명 2,371,880	197명 2,456,710	
무 약 재 성 당	1,886,000		
세검정성당 빈첸시오회	1,000,000		
이주사목위원회			13,237,570
합 계	947명 17,572,610	1,008명 28,377,390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5,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목력 이주여성 시설	2,4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21,000,000 간식비, 교육비, 센터이전비용 지원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15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400,000 제전비
	인도네시아공동체	15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1,0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40,9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5,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
지출 총액		45,950,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2. 11 제 11호

펴낸날 2022. 11. 21.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우리는 무엇으로 말하는가?

이주사목위원회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실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 옵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 모든 언어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친절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미안함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입으로 소리를 내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지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말에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명령이 아닌, '친근함'입니다. 이 친근함은 상대방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하더라도, 상대방은 알아듣습니다. 거짓말 같죠?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 뜻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달됩니다.

성경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언어일지라도 자신의 나라의 말로 이해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넘어서 수 없을 것 같은 큰 벽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넘어서 당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분은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당신의 친근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들을 때, 소름 끼쳤던 적이 있나요? 농담처럼 '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해는 되지 않을 지라도, 전해져 오는 따뜻함과 친근함은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언어의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소리가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걱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충고와 상대방을 무시하며 하는 충고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며, '너 한국말도 못 하면서 여기에서 왜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한 외국인을 나무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외국인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요!'라고 말해주었다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 존재를 가지고 말합니다. 말하는 기술이 부족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남미공동체 소식*



남미공동체 청소년 5명이 지난 9월 17일에 보문동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공동체 담당 수녀님과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님의 지도로 견진교리를 잘 마치고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견진성사로 하느님의 은총과 무한한 선물을 받은 견진자들 모두 축하드리며 풍성하게 받은 성령의 은혜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은총 충만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공동체 소식*

베트남공동체는 10월 16일에 충청북도 연풍순교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대교구의 베트남공동체 신자분들과 함께하여 더 의미 깊은 성지순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성지순례라 180명의 많은 베트남 신자가 함께하였습니다. 미사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며 팬데믹 상황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 오는 은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리핀공동체 소식*



필리핀공동체는 지난 10월 9일에 음악을 사랑하는 필리핀인들을 위해 공동체가 주최로 티켓판매와 후원을 받아 동성고등학교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타국에서 홀로 보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팬데믹 상황은 더욱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콘서트로 외로움을 달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서울어린이대공원(상상놀이터)〉



〈보육교직원 어린이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위원회 소식*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 공동 심포지엄이 10월 26~27일 '난민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대전교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진행되어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도 참석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은 난민과 관련된 강의와 참석자들의 난상토론으로 진행되었고 다른 교구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이주민, 난민들에 대해 선별적 차별을 하고 있지 않았나 반성해보며 이주민과 난민 모두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함께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민 정책 소식*

국내 인구 감소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으로 이민청 설립에 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은 법무부(출입국·난민), 외교부(재외동포), 여성가족부(다문화가정), 고용노동부(외국인 노동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에 있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외국인력·이민자의 유입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 및 이민행정의 원활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 문제는 이민자 수요의 증가와 유입된 이민자의 통합정책, 체류관리의 효율화 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차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민청의 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청이라는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이러한 정책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확대에 따른 한국사회의 수요성, 갈등해소, 이민자 체류지원, 이민의 부정적 영향 해소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구조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 이규용 박사(한국노동연구원)

공지사항 - 기부금영수증 안내*

2022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입금하신 후원금을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2023년 1월 둘째 주에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괄 발송 전 기부금영수증을 먼저 받고자 하는 분이나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은 이주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분들 덕분에 항상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 : 02-924-9970/1)

